

마크 주커버그도 피할 수 없었던 법정 분쟁, 〈소셜 네트워크〉



김주연
변호사

스물여섯의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를 그린 영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창업 실화를 그린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개봉을 1주일 앞두고 1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주커버그는 오만하고(기숙사 명부 사진을 해킹한 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나는 오히려 보안 문제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해요. 학교 시스템의 문제를 찾아냈으니까요.”라고 말한다), 짜질 하며(여자친구에게 차이자 블로그에 여자친구의 가슴은 볼품없고 뽕브라의 효과일 뿐이라고 올린다), 비열하게 그려진다(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에두아르도는 주커버그에게 불쌍하게 내쳐진다). 주커버그로서는 영화로 인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영화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비슷한 부분이라면, 주인공이 입은 옷은 나도 똑 같은 게 있어요.” 감독은 얼마나 서운하겠는가. 고작 옷이라니.). 시의적절한 기부도 이루어졌다.

어찌됐든 간에, 개봉 당시 주커버그의 나이가 스물여섯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이 놀랍다(실존 인물을 이렇게 그리려면 고인이거나 적어도 호호백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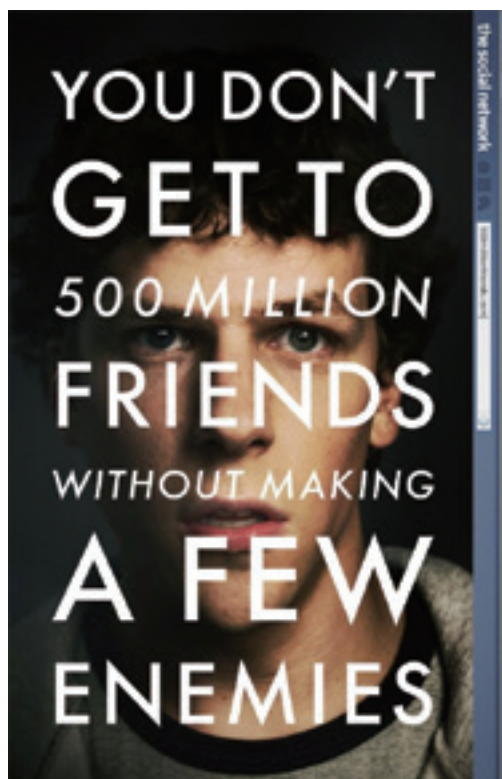
노인은 돼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한편으로 이 영화는 주커버그가 (고작 아카데미 8개 부문 노미네이트, 3개 부문 수상한) 영화 따위는 잊어도 될 만한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는 13억 명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CEO로 무려 세계 부호 11위이다(1984년에 태어났는데, 이 건희 회장보다 부자라니!).

페이스북의 성장통, 주커버그와 윙클보스 형제, 에두아르도 간의 법정 공방

〈소셜 네트워크〉는 주커버그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을 재료로 버무린 영화이다. 영화는 페이스북의 탄생과 성장을 둘러싼 주커버그와 윙클보스 형제, 에두아르도 간의 과거사와 현재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정 공방을 교차적으로 비춘다. 변호사로서 이 영화에는 흥미로운 구석이 여럿 보이는데, 그 중에서 꼽자면 하나는 법정 공방을 재판대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서 벌이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커버그가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이다.

영화는 주커버그가 여자친구 에리카에게 실연당하는 에피소드로 시작한다. (이야기의 맥락이나 상대방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오만함이 똑똑 떨어지는 주커버그의 속사포 대사의 향연은 흥미진진하다(이 청년이 페이스북을 만들게 된다고?). 예컨대, ‘보스턴 대학생인 너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버드 엘리트 클럽에 들어가서 네가 평생 만나지 못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식이다. (누가 봐도 재수가 없는) 주커버그는 (당연히) 에리카에게 차인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학교 기숙사에 돌아온 주커버그는 일단 블로그에 에리카를 향한 욕을 날린 뒤, 집중할 일이 필요하다는 기숙사 명부의 사진을 해킹하여 하버드 얼짱을 뽑는 사이트를 하룻밤에 똑딱 만들어낸다. 이에 윙클보스 형제는 주커버그가 적임자라고 판단, 평소 자신들이 구상해온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한다. 그것은 가입 시 하버드 메일계정을 필수로 요구하는 사이트였다. 그런데 주커버그는 이들 형제와 사이트 제작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는 등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로는 친구 에두아르도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아 독자적으로 페이스북을 제작한다. 하버드생들끼리의 친목 도모를 위한 페이스북 역시 하버드 메일계정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였다. 주커버그는 이 일로 윙클보스 형제와 지적재산권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2010년 개봉한 영화 〈소셜 네트워크〉 포스터
(출처 : 다음 영화[movie.daum.net])

한편 페이스북은 예일, 스탠포드 등 다른 대학으로 세를 넓혀나간다. 이즈음 주커버그는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격인) 냅스터를 창업한 손 파커를 만나고, 그를 통해 페이스북의 비전을 본다. 이에 주커버그가 손 파커를 페이스북에 영입하면서, 손 파커와 업무영역이 겹치는 에두아르도의 회사 내 입지는 점점 좁아진다. 이 와중에 페이스북이 주식 증자를 하게 되고, 에두아르도는 스톡옵션(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부여받지 못해, 에두아르도의 지분율은 기존의 30%에서 0.03%까지 낮아진다. 새로 발행된 주식이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희석되기 때문이다. 에두아르도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주커버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합의나 조정이 필요한 이유

〈소셜 네트워크〉는 법정 영화이지만, 다른 법정 영화에서와 달리 재판정이 등장하지 않는다. 주커버그와 윈클보스 형제, 에두아르도가 판결 선고 대신 합의로써 갈등을 종결시키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윈클보스 형제는 비밀준수약정을 맺고 6,500만 달러에 합의했고, 에두아르도도 얼마에 합의했는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 화면의 공동설립자에서 빠졌던 이름을 다시 복원시켰다. 영화는 소송 관계인들이 재판대가 아닌 테이블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질문하고 진술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작가 아론 소킨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하면서 처음에는 주커버그를 인터뷰하려고 했지만 그 가 영화 내용에 많은 요청 사항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¹⁾ 아론 소킨은 “처음에는 방향성을 잃고 말았다. 세상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 하지만 난 곧 깨닫게 됐다. 아니 잠깐만. 이거 대단한걸! 세상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감독인 데이비드 핀처도 일본 영화 〈라쇼몽〉(한 가지 사건을 두고 저마다 다른 증언을 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보니, 주커버그, 윈클보스 형제, 에두아르도는 각자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진술을 할 뿐이었다. 누군가의 친구로서, 동료로서 함께 시간의 터널을 지나왔어도, 그 터널이 남기는 기억은 저마다 같지 않다. 에두아르도에게는 친구의 가슴 아픈 배신이, 주커버그에게는 그저 사업상 결별 정도의 의미였을 수도 있고, 윈클보스 형제에게는 기분 나쁜 아이디어 도용이, 주커버그에게는 능력 없는 자들의 괜한 투정이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소하거나 중대하거나의 차이일 뿐, 우리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타인과의 오해를 낳고,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 알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는 흥미로운 영화였다. 당사자들의 기억을 애써 하나로 모으거나 봉합

1) 아론 소킨에 대한 내용은 정한석(2010. 11. 18.), “당신이 원하는 진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씨네 2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63645을 인용 및 참조했다.

하는 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는 대로, 그들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찾으려 했고, 변호사는 이에 조력할 뿐이었다. 주커버그의 변호사는 그에게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쓰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그들과는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대신 비밀준수약정서에 서명하게 하자.”고 권유하고 이는 합의로 이어진다.



재판정이 아닌 테이블 위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
(출처 : 다음 영화[movie.daum.net])

한 치의 물썰 틈 없는 사실관계의 확정애 전력해야 하는 때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가 상대의 기억을 방해하지 말고, 나는 나의, 너는 너의 지나온 시간과 생각을 지키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둘 중 하나는 틀렸어.’와 같은 닫힌 시선을 거두고, 다른 기억과 의견을 가진 이들 틈에서 화해의 실마리를 찾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법률가가 할 수 있는 많은 역할 중의 하나이다.

작가 아론 소킨은 “나는 (이 영화를 위해) 많은 조사를 거쳤다. 진실은 주관적이고 사실은 주관적이지 않다. 우린 한 무더기의 사실을 가져다 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 가지 진실 말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세 가지 진실”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나 조정은 당사자를 위한 썩 괜찮은 선택항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디어에도 주인이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는 아이디어 도용 문제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윈클보스 형제는 주커버그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었으므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아이디어 도용을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저작권 침해와 관련,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 그 자체만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표현의 내용이 되는 사상이나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도용만으로는 저작권이 침해될 수 없다. 또한 특허의 경우도 ‘등록’을 필했을 때만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에 이르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도용이 있었다 해도 침해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아 침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설령 주커버그가 윈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해도 지적재산권 위반은 아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 범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적재산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너무 넓히면 새로운 지적재산을 창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여, 결국 창작이나 개발 등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창작과 개발 등은 진공의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와 기술의 토양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것임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사한 의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전에 의자를 만든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돼?”라는 주커버그의 영화 속 반문은 인상적이다. 페이스북 전에 프렌드스터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고, 특정 학교의 메일을 가입계정으로 요구하는 소셜 네트워크도 스탠포드에서 앞서 시작됐었다. 당시의 이러한 ICT산업 분위기는 주커버그에게 페이스북 개발의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무한정 공유의 영역에 풀어두는 것만이 좋은 길일까. 다음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A는 동굴에 갇혀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고 싶다며 영화 제작사 측과의 전화를 통해 시놉시스를 읽어줬다. 제작사 측은 A의 이야기를 사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작사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위 내용을 영화로 제작해버렸다. 이때 시놉시스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표현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A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아이디어의 개발 및 창작 동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A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묵시적 계약이론이다. 묵시적 계약이란 정황²⁾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에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위 케이스에서 미국법원은 A와 제작사 사이에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계약 성립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는 A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제작사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묵시적 계약 성립이 증명되었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원고는 정황증거로써 피고의 도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도용을 지지하는 주요 정황증거로는 (도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원고 아이디어와 피고 창작물이 유사하다.’거나 ‘원고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사실(참신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굳이 도용하지 않아도 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등이 있다.

다시 주커버그와 윈클보스 형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실제로 윈클보스 형제는 주커버그에 대하여 페이스북 사이트 전체 양도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서 “명백하거나 혹은 잠재된 계약 위반³⁾”을 주장하였다. 이들 간 갈등은 합의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어땠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주커버그가 윈클보스 형제와 사이트 개발 관련 연락을 수차례 주고받은 사실, 주커버그

2) 가령 양 당사자 사이에 수차례 아이디어 회의가 있었다거나 양수인 측이 먼저 아이디어의 제안을 요청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묵시적 계약을 인정하기는 더 쉬워진다. 이재경(2010),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묵시적 계약이론”, 《Law & Technology》 제6권 제1호, 56면.

3) Kirkpatrick, D.(2010), 《The Facebook Effect》, 임정민·임정진 역, 《페이스북이펙트》 에이콘 출판, 125면.

가 페이스북 개발 사실을 페이스북 오픈 전까지 윙클보스 형제에게 일부러 숨긴 사실 등은 묵시적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용 여부 판단에는 주커버그의 페이스북과 윙클보스 형제가 추진하던 하버드커넥션의 유사성⁴⁾, 하버드커넥션의 참신성 등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묵시적 계약으로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이디어 도용이 사회통념상 부당해 보이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있었던 일로, 헬로키티의 국내 사업대행사인 B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인기를 끌자 주인공의 코트와 목도리를 착용한 헬로키티를 제작해서 팔았다. 이에 겨울연가 저작권자인 KBS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주인공의 목도리 등에는 KBS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B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겨울연가의 명성을 무단으로 이용, KBS의 드라마 상품화 사업으로 취할 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아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즉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가해의 태양이 중대하며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이디어에도 주인이 있을까. 이는 복잡한 문제이다. 아이디어에 주인을 두면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거인의 어깨를 잃고 말며, 아이디어에 주인을 두지 않으면 멀리 보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생겨난다(이윤추구는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이디어 보호와 도용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의 견지일 것이다. 우리 법은 아이디어를 지적재산권 범위 밖에 두어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법 또는 불법행위법을 적용하여 아이디어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있다.

덧붙임, 주커버그를 궁금하게 만드는 영화 <소셜 네트워크>

이런 저런 말들을 많이 늘어놓았지만,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가 재미있다는 말을 가장 하고 싶었다. 주커버그는 비아냥거리기 일쑤고 착하지도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주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때 즈음엔 나는 실제 주커버그는 어떤 사람일지가 궁금해졌다. 검색해보니 (영화 오프닝에서 주커버그의 캐릭터를 강렬하게 보여주었던) 에리카는 허구 인물이었다. 실제로 주커버그는 9년 간 사귀어자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돈도 많은데 순정남이셔!). 나는 주커버그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영화의 주인공 마크 주커버그의 실제 모습

(출처 : The Washington Post, 「After learning about books, Mark Zuckerberg discovers other exciting new technologies.」, 2015년 1월 7일자)

4) 윙클보스 측의 주요 주장은 '두 개 사이트가 모두 대학생만을 위한 소셜네트워크로 사람들과 그들의 관심사항 등을 담은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있고 하버드대학에서 시작해서 국내외 검증된 학교로 확장하는 계획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 주커버그 측의 주장은 '하버드커넥션은 파티 안내나 데이트 사이트로 개발, 프로모터들과의 협상을 통해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게 목적이었고, 페이스북은 비상업적인 서비스로서 오프라인 학생 편람을 대체할 목적이었고 개인정보가 사이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두 사이트는 명백히 달랐다.'는 것이다. Kirkpatrick, D. 앞의 책, 124-125면.